

홍준표 “계파 없는데 ‘중립’ 이 어딴냐”

친박 향해 “암덩어리 맞는데 뭐라 표현하나”
“맷글 몇 개로 MB 소환한다니 참 기가막혀”
“국회 특활비 제대로 쓰였는지 모두 조사해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난 우리 당에 계파가 없다고 본다. (계파가 없으니) 소위 중립이라는 게 있겠냐”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원내대표) 선거에 중도 중립이라고 하는데 그럼 표를 중간에 찍나. 그건 무효표가 되는 거고 중도층은 결국 스윙보트(부동층 유권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친홍(친 홍준표)이라고 하는데 우리 당 기준으로 하면 90%가 저하고 친하지만 계파라고 할 사람은 한명도 없다”며 “친박(친 박근혜)계 주장도 출당이 됐는데 어떻게 계파가 있을 수 있겠나. 그건 말장난”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12일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이주영, 한선교, 조경태 의원 등이 추진하고 있는 ‘중립 후보 단일화’를 열

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친홍계나 친박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될 경우 당 내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계파에 속하지 않은 중립의원들이 단일화를 통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친박계를 ‘암덩어리’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켰던 홍 대표는 표현이 극단적이지 않느냐는 질문에 “암덩어리가 맞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암덩어리라고 하면 좋겠냐”라며 “제가 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4번을 하고 도지사도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는데 품격을 운운하는 건 참 어이가 없다. 흠잡을 게 없으니 품격을 흠잡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적폐청산 칼끝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나니 칼춤 추는데 어떻게 막겠나. 혐의가 있으면 (이 전 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통령)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해보라”며 “대통령이 할 일이 없어서 사이버 맷글을 달라고 지시했잖나. 저는 맷글 몇 개 갖고 대통령을 소환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참 기가막힌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특활비도 정부가 손을 봐야한다. 제가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쓴 돈은 당시 직원을 통해

서 확인을 했고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밝혔다. 조사를 해보면 단돈 1원도 가져간 적이 없다는 게 나올 것”이라며 “(저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 한 사람들, 의정들, 국회 특활비를 모두 조사해서 그제 제대로 쓰였는지, 누가 깨닫게 썼는지를 조사해보라”고 덧붙였다.
뉴스스

‘의원직 상실’ 국민의당 최명길 “재판은 소를 개로도 만들수도”

“최송한 마음 크지만 죄 지은 사실 없어…부끄럽지 않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당선 무효형)이 확정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5일 “재판은 소를 개로도 만들 수도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여러분이 소중한 표로 만들어주신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우선 최송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최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제가 죄를 지은 사실이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념에 따라 입당한 국민의당이 중도통합의 새로운 길을 찾아가길 낮은 자세로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게 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정당법에 따라 최 의원이 당원 자격도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최 의원은 국민의당 최고위원직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박지원, 최명길 의원직 상실에 “새로운 도전 기대”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같은 당 최명길 최고위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위로를 전하며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최 의원에 위로를 드리고 그를 선출해준 송파 을 구민들에게도 송구한 말씀드립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최 의원은 MBC

기자로 탁월했다”며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날카로운 지적이 절절했던 기억이 새롭다”고 떠올렸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며 “민약 최 의원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덧붙였다.
뉴스스

김성태, 원내대표 출마 “고삐 풀린 망아지같은 文정권 저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폭주하는 문재인 정권의 정치보복을 막아내고 독단과 전횡, 포퓰리즘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오는 12일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보수대전환, 자유한국당 시국론서트’를 열고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당을 지켜내고 미운털 박힌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도록 무거운 짐을 이 두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친박·비박·진박·잔박...고질적 계파주의 청산”

그는 “지금 우리는 문 정권의 독선과 독주 앞에 짓밟히고 난도질 당해도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인기에만 혈안이 된 포퓰리즘 정권이 나라 공간을 거덜 내고 그 꼬임에 취해 환호하는 국민들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홍위병 정치, 대통령 정치를 막아내고 수권야당 승리하는 야당, 전부적으로 당당한 야당을 만들겠다”며 “보수혁신의 중심에서 서서 더불어민주·문재인 정권에 맞서는 유일보수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 결집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 정권이 뒤로는 정치보복의 섬뜩한 칼을 들어대도 우리는 반목과 갈등으로 혁신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친박(친 박근혜), 비박(비 박근혜), 진박(진실한 친박), 잔박(잔류 친박) 등 고질적인 계파주의를 청산하고 분열주의와 완전히 결별하는 화합하는 야당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도 캐비닛(예비 내각)을 만들어 정부여당의 결집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문가 정당을 만들겠다”며 “원내대표 특수활동비는 상임 위 전문가 활동을 뒷받침하는 예산으로 쓰고 원외위원장을 각 정책조정위원회로 배정해 역량을 강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광고비예상조 정본인원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李 총리 “낙시어선 사고 빈발...원점 점검”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영흥도 낙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2년 전 ‘돌고래’ 사고 이후 소관부처가 낙시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는데도 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회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최근 낙시 인구가 폭증, 따라

서 낙시어선의 충돌이나 전복 사고도 해마다 빈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지,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원점에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엔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엔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